

次世代 原電開發을 위한 國際協力 협의

— 第 5 回 韓國原産 / 原子力學會 年次會議 개막 —

IAEA協力 위해 비엔나에 代表部 신설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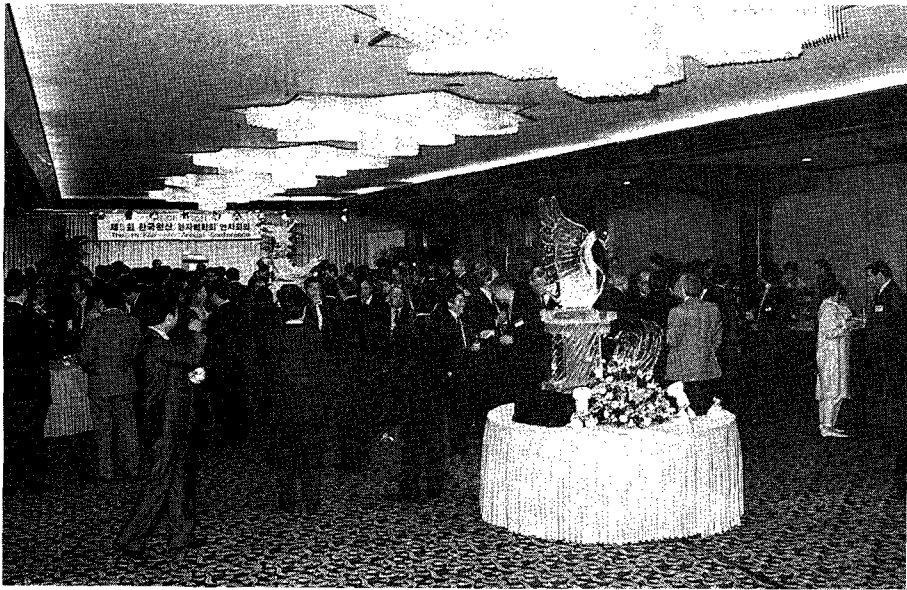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5회 연차회의가 4월17일부터 19일까지 웨라톤 워커 힐호텔에서 개막되었다.”



“차세대 원자력개발과 국제협력”을 기조테마로 한 이 국제회의에는 미국과 소련, 프랑스,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 10개국에서 내한한 100여명의 외국전문가와 400여명의 국내인사가 참가하였으며, 이 회의 기간중 35편의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4월18일 상오 개최식에서 鄭根謀 과기처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국내 원자력정책은 원자력산업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에 주력해 왔으

나, 이제 국내 원자력산업도 성숙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원자력의 기술자립과 안전성 향상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중수로에 재사용하는 핵연료주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자력기술 향상을 위해 세계각국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와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정보의 교환 및 외교적 교섭이 필요한 만큼 가까운 장래에 “비엔나 대표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安秉華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原子力發電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에도 현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化石연료로 인한 공해문제가 지구촌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부터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차체에 원전의 기술향상과 신뢰의 회복으로 국민 이해의 증진에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보리스 A. 세메노프박사는 특별강연에서 다음 세기 상반기에는 원자력 전기에 추가하여 원자력 열(Nuclear Heat)을 생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21세기 중반까지는 핵융합발전이 세계에너지시스템으로서의 상업적인 도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세메노프박사는 또 원자력만이 2000년대 이후의 세계에너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고 밝히고, 국제간의 협력을 통해 일반국민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원자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미·칼레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高速增殖爐 실용화시대 도래”라는 논문을

통해 자연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사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원자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21세기에는 핵연료의 다양한 기술개발로 우라늄과 플루토늄 둘 다를 사용하는 원자로의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속중식로 실용화로 기존원자로를 쇄신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S.R. 헤처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장은 “인류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후진국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추진에 재정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제문제는 새로운 국제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저개발국가에 대한 다각적 협력의사를 밝혔다.

한전 기술연구원의 최영상부장은 “한국에서의 차세대 원자로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형원자로는 안전성, 경제성, 기술성 및 상업화에 역점을 두어 국내 기술기반을 고려한 연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경 상업화를 목표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 국내 신형원자로의 등장을 예고했다.